

한주간 쉽게 보는

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

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

No. 103



Contents



※ 2025.11.06(목) 기준(대상 기간 : 2025.10.30.~2025.11.05.)

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

■ 탄소중립 분야 1

- 정진욱 의원, RE100산단 법제화로 지역균형·탄소중립 추진(2025.11.02)1
- 정부,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...공급조정·탄소중립 총력(2025.11.05)1
- 진주시 그린스텝 챌린지 성료(2025.10.30) 2
- 사천시 기업·사회단체봉사회, 탄소중립 캠페인 전개(2025.10.30) 2
- 전병주 서울시의원, 지자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 토론회 개최(2025.10.30) 2
- 금산군, 탄소중립 및 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전기저상버스 도입(2025.10.30) 3
- 남원시, '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' 2년...탄소중립·행정효율 확보(2025.10.30) 3
- 전북도, 카타르 GCC와 새만금 RE100·탄소중립 전략 협력(2025.10.30) 4
- 충남 논산 강경, 올 겨울부터 도시가스 공급 시작(2025.11.02) 4
- 이재준 수원시장, "탄소중립은 시민 실천으로 실현"(2025.11.03) 5
-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, 중소기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진행(2025.11.03) 5

■ AI 분야 6

- 한·미, AI·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 MOU 체결(2025.10.30) 6
- 충북도, AI 미디어 산업 선도 전략 제시(2025.10.30) 6

- 민주당 호남특위, 광주 의료로봇 산업 육성 논의(2025.10.30) 6
- 전남도, AI 스마트팜 농산물 수출 위한 협약 체결(2025.10.30) 7
- 전주시, AI추진위원회 출범...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(2025.10.30) 7
- 전남 국제농업박람회, AI 기반 미래 농업 제시하며 폐막(2025.10.30) 7
- 강기정 광주시장, "AI 시대 지방정부 중심 상생모델 만들자"(2025.10.30) 8
- 경남, AI 기반 제조업 대전환 본격 추진(2025.10.30) 8
- 서울시, AI 청년미래위원회 출범...스타트업 대표 참여(2025.10.30) 8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9

▪ 탄소중립 분야 9

- 한전,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대상 경품 이벤트 실시(2025.10.30) 9
- 기후변화센터, '자원순환과 그린잡' 주제로 탄소중립 토크콘서트 개최(2025.10.30) 9
- 에너지정보문화재단-노원구, '탄소중립' 협력 및 시민참여 사례 발굴(2025.10.30) 10

▪ AI 분야 10

- 금융위,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 가동(2025.10.30) 10

□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(포럼, 세미나, 토론회) 주요 내용 11

▪ 탄소중립 분야 11

- 초록우산·인천 에너지 4사, 청라중에 탄소중립 학교숲 조성(2025.10.30) 11

- 삼성전자, '新환경경영전략'으로 2050 탄소중립 도전(2025.10.30)	11
-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"수소, 탄소중립 가속화 핵심"(2025.10.30)	12
- 신한운용 '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 펀드', 1년 수익률 92% 기록(2025.11.05)	12
- 국도1호선포럼, AI·탄소중립·에너지 전환 주제 세미나 개최(2025.11.03)	13

■ AI 분야 14

- 쿠팡 CLS, 경남 스마트물류 투자로 도지사 표창 수상(2025.10.30)	14
- LG유플러스-경희대, 네트워크 분석 AI 모델 개발(2025.10.30)	14
- SKT, 오픈랜 데이터 수집 기술 'FILM' 표준화 주도(2025.10.30)	14
- 한화, 美 해박AI와 손잡고 무인 해양 시장 공략(2025.10.30)	15
- SK하이닉스, AI 메모리 힘입어 3분기 최대 실적(2025.10.30)	15
- <u>뱅크오브아메리카</u> , 앱 내 AI 기능 사용량 사상 최고(2025.10.30)	15
- 삼성전기, AI·전장 수요 증가로 MLCC 공급 빠듯(2025.10.30)	16
- 글로벌 빅테크, 한국에 AI 투자 확대...AWS 7조 원(2025.10.30)	16
- SK플래닛, 11번가 완전 인수...AI 커머스로 도약(2025.10.30)	16
- 롯데 김상현 부회장, "AI는 오프라인 매장 혁신 도구"(2025.10.30)	17
- 코오롱베니트, 건설 현장용 AI 안전관제 솔루션 상용화(2025.10.30)	17
- 스카이인텔리전스, APEC 행사서 3D AI 기술 시연(2025.10.30)	17
- 카카오뱅크, AI와 대안신용평가로 포용금융 확대(2025.10.30)	18
- 한림대, 'AI 페스타' 개최...교육 주권 선언(2025.10.30)	18
- 오픈AI, 영리법인 전환...대규모 투자 유치 길 열어(2025.10.30)	18
- 구글, AI 성장에 힘입어 분기 매출 1천억 달러 돌파(2025.10.30)	19

- 트럼프, APEC서 한미 동맹 및 AI 비전 강조(2025.10.30)	19
- 글로벌 CEO 70%, "AI가 향후 3년 성장 열쇠"(2025.10.30)	19
- 푸드위크 코리아, AI·3D프린팅 접목된 미래 식탁 제시(2025.10.30)	20

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중앙부처	☐ 정진욱 의원, RE100산단 법제화로 지역균형·탄소중립 추진(2025.11.02) -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'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'(RE100산단법)을 대표 발의함. 이 법안은 RE100 산단 조성을 법제화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함 -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입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전력의 지역 내 생산·소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임.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감면, 설치비 지원 등을,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정주 여건을 제공함 -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단지 지정을 심의하며, 인허가 의제 도입으로 절차를 신속화함. 또한, 전력 우선 공급 의무화, 국가 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 특례 조항 등을 포함하여 '지산지소' 기반 산업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
	☐ 정부,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...공급조정·탄소중립 총력(2025.11.05) - 정부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'철강산업 고도화 방안'을 발표함.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과잉 조정, 통상대응 강화, 저탄소·고부가 전환, 안전 및 상생협력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됨 - 공급과잉 품목은 시장 자율 조정을 지원하고, 수입재 대응을 우선함. 통상 대응을 위해 미국 및 EU와 적극 협상하고, 4천억 원 규모의 보증상품 신설 등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임. 불공정 수입재 단속과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도 시행함 - 탄소중립을 위해 8100억 원 규모의 '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'을 추진하고, 저탄소 기술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. 또한, 철강산업 집적지 지원, KS 인증제도 강화, AI 기반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됨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진주시 그린스텝 챌린지 성료(2025.10.30) - 진주시와 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28일 '제1회 진주시 그린스텝 챌린지' 시상식을 개최함. '푸른 하늘의 날'을 기념한 이번 걷기 캠페인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, 총 3232명의 시민이 참여함 - 누적 걸음 수 상위자 25명이 시상금 대상자로 선정됨. 여성 참여율이 62%로 높았고, 30대와 40대 참여가 62%로 가장 활발했으며, 15명이 공동 1등을 차지할 만큼 치열한 참여를 보임 - 국방기술품질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의미를 더함. 기서진 센터장은 시민과 공공기관이 한마음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 것을 뜻깊게 평가하며, 기후 행동 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다짐함
	□ 사천시 기업·사회단체봉사회, 탄소중립 캠페인 전개(2025.10.30) - 사천시자원봉사센터와 사천시 기업·사회단체봉사회가 지난 25일 실안 산분령마을 인근에서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함 - '바다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요'를 주제로, 산분령마을에서 사천세계아트서커스까지 도로변 우수관 환경 정화 및 고래 스티커 부착 활동을 실시함 - 해당 봉사회에는 BAT코리아 한사랑회 봉사단, 한전KPS삼천포사업처, 천사회, 디딤돌 봉사회 등 10개 단체가 소속되어 활동함
	□ 전병주 서울시의원, 지자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 토론회 개최(2025.10.30) -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이 28일 '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'를 개최함. (사)한국기후환경원과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음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- 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이 지역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행정·기업·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함.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도시가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을 강조함 - 토론자들은 서울형 재생 열에너지원 발굴, 실질적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, AI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, 통합적 조례 마련 등 구체적인 전략과 구조적 한계 개선 방안을 제안함. 전 부위원장은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함
	□ 금산군, 탄소중립 및 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전기저상버스 도입(2025.10.30) - 금산군이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함. 총 14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 내연기관 중형버스를 대체할 전기저상버스 4대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임 - 이번에 도입되는 버스는 저상형 구조로 휠체어 이용자,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. 또한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- 군은 이번 교체를 시작으로 2034년까지 운행 중인 내연기관 중형버스 10대를 모두 저상형 전기버스로 순차 교체할 방침임. 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힘
	□ 남원시, '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' 2년...탄소중립·행정효율 확보(2025.10.30) - 남원시가 도입한 '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시스템'이 탄소중립 실천과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음. 2023년부터 태블릿PC 80대를 배부해 매달 평균 20회의 회의를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함 - 회의 참석자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자료 공유와 논의 내용 기록이 가능해져,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체계가 구축됨. 이를 통해 종이 자료 준비에 소요되던 행정력 낭비가 크게 감소함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- 종이 사용 감축은 A4 용지 한 장당 24.48g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로 이어짐. 최경식 시장은 스마트 회의 운영이 탄소중립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, 드론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힘
	□ 전북도, 카타르 GCC와 새만금 RE100 · 탄소중립 전략 협력(2025.10.30) - 전북특별자치도가 카타르 글로벌탄소위원회(GCC)와 협력하여 새만금 RE100 산단 및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냄. 이는 전북형 친환경 산업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제 탄소 감축 협력 관계망 구축의 일환임 - 김관영 지사는 30일 서울에서 GCC 유세프 의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함. GCC는 카타르 월드컵 탄소중립 인증을 수행한 국제 비영리 기구로, 지자체 협력 확대를 위해 방한함 - 도는 새만금 RE100 산단,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함. 유세프 의장은 전북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모델 구축을 기대함. 도는 'RE100-수소-탄소감축' 산업벨트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임
	□ 충남 논산 강경, 올 겨울부터 도시가스 공급 시작(2025.11.02) - 올 겨울부터 충남 논산시 강경읍 주민 3500세대가 도시가스 난방을 이용할 수 있게 됨. 충남도는 31일 강경 근린공원에서 도시가스 특별 지원 사업 개통식을 개최함 - 강경 도시가스 공급은 민선8기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 1호 사업임. 도는 2023년 협약 이후 250억 원을 투입해 40km 규모의 배관망을 구축했으며, 주민들은 연간 30%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함 - 김태흠 지사는 에너지 복지 달성을 강조하며 2028년까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200억 원, 복지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 밝힘. 도는 서산, 보령, 금산 등 타 지역으로도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이재준 수원시장, "탄소중립은 시민 실천으로 실현"(2025.11.03) - 이재준 수원시장이 2일 '제1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'에 참석해 시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함. 적정 실내 온도 유지, 쓰레기 감축 등 작은 행동이 모여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며 시민 동참을 당부함 - '지구로운 일상, 무해로운 삶'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수원시 '탄소중립 실천주간'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임. 공연, 체험, 캠프닉존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됨 - 축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, 버스킹 공연, 어린이 직업체험존 등으로 구성됨.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, 자원순환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함
	□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, 중소기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진행(2025.11.03) - 화성시연구원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10월 31일 '제1차 화성시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'을 개최함. 교육에는 공무원,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함 - '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및 향후 과제'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기만 부연구위원이 발제함.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, 중소기업 전환 전략, 자발적 탄소시장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을 다룸 - 정재형 센터장은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, 중소기업이 정책과 시장을 활용해 새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함. 2차 교육은 11월 7일 물류산업을 주제로 이어질 예정임

☞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중앙부처	☐ 한·미, AI·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 MOU 체결(2025.10.30) - 한국과 미국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AI, 양자, 우주 등 핵심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'한-미 기술번영 MOU'를 체결함 - 양국은 혁신 친화적 AI 정책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,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수출 협력 등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에 합의함 - 차세대 통신, 바이오 공급망 등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며,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
지자체	☐ 충북도, AI 미디어 산업 선도 전략 제시(2025.10.30) - 충청도가 AI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미래 콘텐츠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- 김영환 도지사는 AI 미디어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 AI 기술 기반의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- 충북AI미디어센터는 AI영상,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과 창작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글로벌 미디어 창작자로 육성할 계획임 ☐ 민주당 호남특위, 광주 의료로봇 산업 육성 논의(2025.10.30) -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을 방문해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의료로봇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함 - 참석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술이 AI와 결합하면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- 이병훈 위원장은 광주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성장 축을 재편하고 AI와 의료기술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전남도, AI 스마트팜 농산물 수출 위한 협약 체결(2025.10.30) - 전라남도가 일본 기업 세비아, 영농법인 탐진들과 AI 스마트팜 농산물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- 이번 협약으로 세비아는 일본 유통망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, 탐진들은 AI 기반 스마트농업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담당함 - 전남도는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해 지역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
	□ 전주시, AI추진위원회 출범...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(2025.10.30) - 전주시가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'AI 추진위원회'를 공식 출범하고 피지컬 AI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섬 - 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전주시의 AI, 로봇, 모빌리티 분야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- 함께 열린 포럼에서는 피지컬 AI를 통한 제조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으며, 전북도는 관련 플랫폼 구축에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
	□ 전남 국제농업박람회, AI 기반 미래 농업 제시하며 폐막(2025.10.30) - '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'을 주제로 열린 2025 전남국제농업박람회가 24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폐막함 - AI, 로봇,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, 수출상담회를 통해 약 330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함 -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학술행사를 통해 AI 기반 농업 혁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K-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됨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강기정 광주시장, "AI 시대 지방정부 중심 상생모델 만들자"(2025.10.30) - 강기정 광주시장이 한중 지사·성장 회의에서 AI 시대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함 - 강 시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 공동 대응, 청년 스타트업 교류 정례화, AI 스마트 행정 구축 등 구체적인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시함 - 광주시는 그동안 축적한 AI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들과 모빌리티,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실증을 추진할 계획임
	□ 경남, AI 기반 제조업 대전환 본격 추진(2025.10.30) - 경상남도가 노후화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제조 AI 메카'를 비전으로 내걸고 AI 기반의 제조업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- 창원국가산단의 풍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1조 원 규모의 '제조 피지컬 AI 개발' 사업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- 도는 인공지능산업과를 신설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제조 특화 AI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임
	□ 서울시, AI 청년미래위원회 출범...스타트업 대표 참여(2025.10.30) - 서울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을 AI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'AI 청년미래위원회'를 출범함 - 위원회는 서울의 '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' 비전 실행을 위한 민관 협력 자문기구로, 반도체,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 대표가 참여함 - 첫 회의에서는 서울 AI 재단의 사업 방향과 민관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, 시는 청년들의 제언을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

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□ 한전,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대상 경품 이벤트 실시(2025.10.30) - 한국전력이 국민의 자발적인 전기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하기 위해 '에너지캐시백' 캠페인을 진행함.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겨울철 전기사용량 감축을 위해 가입 고객 650명 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함 -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대비 3% 이상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면, 절감률에 따라 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절전 프로그램임. 캐시백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현재 155만 명이 가입함 - 한전은 AMI 설치 고객에게 일별 전력 사용량 확인, 절감 목표 설정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. 한전 관계자는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품 혜택도 누리는 친환경 행동 동참을 당부함
	□ 기후변화센터, '자원순환과 그린잡' 주제로 탄소중립 토크콘서트 개최(2025.10.30) - (재)기후변화센터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 10월 28일 '제8회 톡톡_TALK, TALK! 탄소중립'을 개최함. 이번 행사는 “탄소중립 시대, 자원순환이 여는 그린잡의 미래”를 주제로 진행됨 - 토크콘서트는 자원순환(4R)을 통해 확장되는 녹색 일자리와 산업 전환의 흐름을 조명함. 기후기술, 소재, 사회혁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자원순환과 일자리의 연관성을 다룸 - 전문가들은 LCA와 자원순환 기획 등 융합 역량, 탄소 저장 소재의 경쟁력, 협업 구조 설계, 폐기물을 활용한 기후 해법 등을 강조함. 기후변화센터는 자원순환을 산업과 일자리 전환의 기회로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 밝힘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□ 에너지정보문화재단-노원구, '탄소중립' 협력 및 시민참여 사례 발굴(2025.10.30) -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서울 노원구가 지역사회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함. 양 기관은 30일 '지역사회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'을 공동 개최함 - 이번 프로그램은 '시민참여 기반 탄소중립 선도도시'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·지원조직·시민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됨. 공무원, 주민활동가 등 약 35명이 참여함 - 프로그램은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현장 견학으로 구성됨. 1일차에는 주민주도 탄소중립 전환 강의와 수원시 사례 특강, 업사이클 플라자 방문이 진행됐으며, 2일차에는 RE100 정책 강의와 파주 RE100 시범사업 현장 견학이 예정됨
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
👉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□ 금융위,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 가동(2025.10.30) - 금융당국이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금융권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'ASAP'을 가동함 - ASAP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범죄 이용 계좌 등 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하게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시스템임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- 이를 통해 개별 대응을 넘어 범죄조직의 전체 자금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며,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도 병행됨
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
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(포럼, 세미나, 토론회) 주요 내용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☐ 초록우산 · 인천 에너지 4사, 청라중에 탄소중립 학교숲 조성(2025.10.30) -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서구 4개 에너지 기업과 함께 인천 청라중학교에 탄소중립 '학교숲'을 조성함. 이는 2019년부터 시작된 6번째 숲 조성 사업으로,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등이 참여함 - 학교숲에는 계수나무, 이팝나무 등 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다양한 수종이 식재됨. 이를 통해 연간 탄소 1,050kg과 미세먼지 1,570g의 저감 효과가 기대됨 - 박선아 교장은 학교숲이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터전이 되길 희망함. 에너지 기업 4사는 미래세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함. 초록우산 인천본부는 취약계층 아동 복지사업을 진행 중임
	☐ 삼성전자, '新환경경영전략'으로 2050 탄소중립 도전(2025.10.30) - 삼성전자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'新환경경영전략'을 가속화함. AI 및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반도체 산업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강화하며, 2030년까지 환경경영 과제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임 - DX부문은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4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전환율 93.4%를 달성함. DS부문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공정가스 저감과 에너지 전환 투자를 확대 중임 -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적용할 목표(현재 31% 달성)이며, 초저전력 기술로 2030년까지 대표 제품 전력 소비를 30% 절감할 계획임. 또한 반도체 사업장 물 취수량 제로화 등 수자원 보존에도 집중함
	□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"수소, 탄소중립 가속화 핵심"(2025.10.30) -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30일 'APEC CEO 서밋 2025'에서 수소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함.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고 말함 - 현대차그룹은 1998년 R&D 조직 신설 이후 대형 수소전기트럭 세계 최초 양산 등 성과를 내왔음. 최근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수출차량 운반용 및 미국 항만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등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 중임 -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수요 창출과 공급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. 2029년까지 제주도에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, 울산 수소 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
	□ 신한운용 '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 펀드', 1년 수익률 92% 기록(2025.11.05) - 신한자산운용의 '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'가 1년 수익률 92.52%를 기록, KG제로인 분류 해외주식형 펀드 중 1위를 차지함. 올해 540억 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며 AI와 탄소중립을 결합한 대표 펀드로 자리매김함 - 해당 펀드는 AI 인프라, 재생에너지, 피지컬 AI, 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여하는 글로벌 핵심 산업군 40~50개 기업에 선별 투자함. 국내 대표 기업도 포함하며, 외화자산의 약 80% 수준을 환헤지하여 변동성을 관리함 - 주요 투자 종목은 테슬라, 엔비디아, 삼성전자, GE 버노바 등 AI 및 에너지 전환 핵심 가치 사슬의 글로벌 선도기업임. 신한자산운용은 기술혁신과 ESG 가치를 결합해 안정적 초과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 밝힘
대학교	□ 국도1호선포럼, AI·탄소중립·에너지 전환 주제 세미나 개최(2025.11.03) - 국도1호선포럼이 4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제6회 세미나를 개최함. '친환경 무탄소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'을 주제로 AI, 탄소중립,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함 - 포럼은 2022년 6월 출범한 비영리 전문가 단체로, 도시·교통·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함. 이번 행사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,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 50여 명이 참석함 - 세미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, 1부에서는 지역주력산업의 탈탄소 디지털 대전환 협력모델이 발표됨. 2부에서는 해외 녹색투자 펀드 사례, 탄소중립 건축인증제, 에너지 고속도로 현황 등이 발표되고 패널토론이 이어짐
해외	- (해당 없음)
기타	- (해당 없음)

☞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☐ 쿠광 CLS, 경남 스마트물류 투자로 도지사 표창 수상(2025.10.30) - 쿠광 CLS가 경남 김해에 AI 기반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함 - 2030년까지 약 1930억 원을 투입해 김해에 스마트물류센터를 조성하고 1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를 세움 - AI 기반 수요예측 시스템 도입 및 저온 설비 구축으로 로켓배송 지역을 경남 전역과 도서 산간까지 확대할 예정임
	☐ LG유플러스-경희대, 네트워크 분석 AI 모델 개발(2025.10.30) - LG유플러스가 경희대와 협력해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 지역의 특성을 신속하게 판별하는 AI 모델 개발에 성공함 - 새 AI 모델은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해 아파트 단지나 상권 등 지역 특성을 90% 이상의 정확도로 도출함 -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의 효율적 배치와 시간대별 출력 조정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자율 네트워크 관리 체계 고도화가 기대됨
	☐ SKT, 오픈랜 데이터 수집 기술 'FILM' 표준화 주도(2025.10.30) - SK텔레콤이 글로벌 오픈랜 표준화 기구인 'O-RAN 얼라이언스'에서 AI 기반 무선망 데이터 수집 기술 'FILM'의 표준화를 주도함 - FILM은 AI가 네트워크 품질을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특정 조건의 단말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기술로, 효율적인 품질 최적화를 가능하게 함 - SKT는 13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기술 문서를 발간했으며, 앞으로도 AI와 오픈랜을 결합한 네트워크 AI 기술 진화를 선도할 계획임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□ 한화, 美 해벽AI와 손잡고 무인 해양 시장 공략(2025.10.30) - 한화가 미국 해양 무인체계 솔루션 기업 '해벽AI'와 협력해 글로벌 해양 무인체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침 - 거제사업장에서 하와이에 있는 무인수상정을 원격 통제하는 기술을 선보였으며, 한화의 함정 기술과 해벽AI의 자율운항 역량을 결합할 예정임 - 양사는 방산 및 민수 분야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 있는 자율운항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임
	□ SK하이닉스, AI 메모리 힘입어 3분기 최대 실적(2025.10.30) -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함 - HBM3E와 AI 서버용 기업용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되었으며, 3조 8천억 원의 순현금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함 - 내년 HBM 수요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, 10나노급 6세대 미세공정 전환 가속화와 HBM4 출시로 AI 메모리 시장 리더십을 지켜갈 계획임
	□ 뱅크오브아메리카, 앱 내 AI 기능 사용량 사상 최고(2025.10.30) -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기업용 banking 플랫폼 '캐시프로' 앱에서 AI 기반 채팅과 거래 검색 기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- 캐시프로 채팅 사용은 전년 대비 21% 증가했으며, 거래 검색 기능은 2025년 3분기에만 약 240만 건이 이용되어 분기 기록을 경신함 - AI 셀프 서비스 도구가 기업 고객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있으며, 향후 신용 조회 지원 등 워크플로우 간소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임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□ 삼성전기, AI·전장 수요 증가로 MLCC 공급 빠듯(2025.10.30) - 삼성전기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AI 서버와 전장용 대형 MLCC 수요가 빠르게 늘어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밝힘 - 이에 따라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증설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, 제품 구성을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- IT용 제품에서도 최상위 사양 중심으로 고객 대응을 강화하여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
	□ 글로벌 빅테크, 한국에 AI 투자 확대…AWS 7조 원(2025.10.30) - 아마존웹서비스(AWS)가 2031년까지 한국에 약 7조 원을 추가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대폭 확장한다고 밝힘 - 이는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국내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로, 한국을 차세대 AI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됨 - 오픈AI와 엔트로픽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 내 거점 마련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, 한국이 글로벌 AI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음
	□ SK플래닛, 11번가 완전 인수…AI 커머스로 도약(2025.10.30) - SK플래닛이 11번가 지분 100%를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, OK캐쉬백과의 시너지를 통해 커머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함 - 11번가는 AI 기술로 고객 구매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'AI 기반 맥락 커머스' 플랫폼으로 진화할 계획임 - 양사의 데이터와 AI 역량을 통합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, 셀러와 고객이 상생하는 건전한 커머스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임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□ 롯데 김상현 부회장, "AI는 오프라인 매장 혁신 도구"(2025.10.30) - 김상현 롯데 유통군 부회장이 APEC CEO 서밋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오프라인 매장의 새로운 쇼핑 경험을 만드는 혁신 도구라고 강조함 - 롯데는 AI 기반 상품 분석, 가상 인테리어 상담, 무인 결제 등을 도입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함 - 김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이 고객 경험과 기업 성과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과정이라며, 사람 중심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힘
	□ 코오롱베니트, 건설 현장용 AI 안전관제 솔루션 상용화(2025.10.30) - 코오롱베니트가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모델과 리벨리온의 NPU를 결합한 'AI 비전 인텔리전스' 솔루션을 상용화함 - 이 솔루션은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안전모 미착용이나 위험구역 진입 등을 탐지하고 즉각적인 알림을 제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함 - 사전 검증을 통해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으며, 향후 제조와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
	□ 스카이인텔리전스, APEC 행사서 3D AI 기술 시연(2025.10.30) - AI 콘텐츠 솔루션 기업 스카이인텔리전스가 APEC 부대행사인 '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'에 참가해 3D AI 콘텐츠 제작 기술을 선보임 - 자체 개발한 로봇암 3D 스캐너와 생성형 AI 플랫폼 '비쓰리'를 시연해, 촬영 없이 고품질 콘텐츠를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음 - 현장을 방문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,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계획임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	□ 카카오뱅크, AI와 대안신용평가로 포용금융 확대(2025.10.30) - 카카오뱅크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자(썬파일러)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음 - 도서 구매나 선물하기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반영한 '카뱅스코어'로 기존 평가에서 거절된 고객들에게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공급함 - 또한 생성형 AI를 앱 전반에 도입해 스미싱 탐지, 자연스러운 상담 챗봇 등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
대학교	□ 한림대, 'AI 페스타' 개최...교육 주권 선언(2025.10.30) - 한림대학교가 AI 교육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협력을 도모하는 '한림 AI 페스타 2025'를 개최함 - 행사에서는 외국 AI의 교육 잠식에 대응해 교육 주권을 확립하자는 '발전적 AI 주권' 선언과 함께 다양한 해커톤, 세미나가 진행됨 - 최양희 총장은 AI 전환을 통해 학생과 사회가 만족하는 새로운 교육 구성을 만들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강조함
해외	□ 오픈AI, 영리법인 전환...대규모 투자 유치 길 열어(2025.10.30) - 오픈AI가 대규모 자본 조달을 위해 회사 구조를 공익적 영리법인(PBC)으로 재편하고 본격적인 영리 사업 확대에 나섬 - 이번 구조 변경으로 투자자 수익 상한이 폐지되어 상장(IPO)이 가능해졌으며,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27%를 확보하게 됨 - 이는 AGI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, 오픈AI 재단은 이사회 임명권을 통해 여전히 최종 통제권을 유지함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	□ 구글, AI 성장에 힘입어 분기 매출 1천억 달러 돌파(2025.10.30) -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AI 시장 확대에 따른 클라우드 부문 성장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함 -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% 증가한 102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34%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함 - 순다 피차이 CEO는 AI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, AI 챗봇 제미나이의 이용자 수도 크게 증가함
	□ 트럼프, APEC서 한미 동맹 및 AI 비전 강조(2025.10.30) 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함 -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며, 공정한 무역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내비침 -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APEC이 연대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, '모두를 위한 AI'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다고 밝힘
기타	□ 글로벌 CEO 70%, "AI가 향후 3년 성장 열쇠"(2025.10.30) - KPMG의 글로벌 CEO 전망 조사 결과,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CEO 10명 중 7명은 AI를 향후 3년 내 성장의 핵심 열쇠로 꼽음 - 응답자의 71%가 AI를 최우선 투자 분야로 선정했으며, 83%는 향후 12개월 내 예산의 10% 이상을 AI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- CEO들은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로 사이버 보안 위협과 AI 인력 부족을 우려하면서, 인재 확보와 M&A 등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	□ 푸드워크 코리아, AI·3D프린팅 접목된 미래 식탁 제시(2025.10.30) - 코엑스에서 열린 '푸드워크 코리아 2025'가 '푸드테크가 만드는 내일의 식탁'을 주제로 AI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 식품 트렌드를 선보임 - 전시장에서는 사용자 맞춤형 3D 푸드 프린팅, AI 기반 개인 영양 분석, 조리 로봇 등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이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음 - K-소스 열풍을 반영한 특별관과 글로벌 수출상담회도 함께 열려 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됨

※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(연구기획전략실)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